

짧지만 경쾌한 재미 선사하는 콩트집

기성작가 작품집 외에 아마추어문인들 것도 상당수 선봬

책과 함께 떠나는 여행길은 즐겁다. 친구들 몇명에서 바다로 혹은 산으로 떠나는 여행길이 비록 교통체증으로 짜증이 난다 해도 여행이라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동경심은 그 짜증을 반으로 줄이기에 충분하다. 간혹 친구 중 한 사람이 콩트집 하나를 읽다가 괜히 깔깔 웃는다거나 자신이 웃는 이유를 즐겁게 들려준다면 좌중은 어느새 짜증을 잊고 여행의 새로움에 다시금 몰입할 수 있을 것이다.

콩트가 쓰여지고 읽히는 데는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일정부분 열린 공간으로 나아가는 중인 동시에 이러한 상황을 직설적인 표현보다 우회적인 표현으로 기술하려는 작가들의 욕구가 동시에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겠다. 또 기업체에서 발행하고 있는 사보의 영향도 적지 않게 작용하고 있다. 베스트셀러를 실질적으로 만들고 있는 오피스 걸들에게 가장 인기있는 소설가, 시인들은 곧 사보의 콩트까지 집필하는 현상을 보인다. 작가의 측면에서 본다면, 사보라는 지면의 괜찮은 원고료가 콩트를 쓰게 하는 이유로 크게 자리잡게 되었음을 간과할 수 없다. 하지만 이러한 양상은 지금에 이르러서 약간의 경향을 달리하고 있다. 콩트를 쓰는 사람도 소설가 시인들에 한정되던 것이 이제는 방송작가, 사업체 경영인, 무명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의 이야기를 끄집어 내놓고 그 웃음을 독자들에게 전달해 주고자 하는 시도가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작가가 작품을 대하는 태도 또한 역력하게 과거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기존의 콩트가 가지고 있는 쾌락성과 함께 교시성까지도 함께 아우르려는 작가들의 노력이 엿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풍자 콩트집 의외로 많아

시중에 나와 있는 콩트집을 소재별로 구분해보면 정치사회 풍자집, 병영 풍자집, 대학생 모음, 스포츠신문에 게재된 '아한' 글 모음, 잔잔한 일상생활 풍자집 등 그 소재가 넓게 퍼져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분류된 콩트집 중 가장 많은 내용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단연 정치 풍자집. 박범신, 고원정 등 소설가들이 쓴 「각하 백성도 마음대로 하겠습니까」(백성출판사), 대학생 창작글 모음 햇새벽의 「민자 민자 민자」(민맥), 고원정의 「대감들 청문회에 불려오다」(미학사), 김홍신 외 지음의 「보통 공화국」(모음사), 이

상락의 「민자의 전성시대」(정민)와 「지구는가끔 독재자를 중심으로 돈다」(창작과비평), 이호광의 「대통령 웃으시네」(백상), 위기철의 「벼룩의 간」(세계), 장덕균의 「No 대통령의 조크」와 「탱자 가라사대」(현대문화센타) 등의 책들이 정치풍자집의 범주에 들어설 수 있는 콩트집이다.

이러한 정치 풍자집들은 대부분 민정 민주공화 3당의 합당을 비꼬고 있다. 특히 「민자……」는 야합과 밀월의 시대, 통합과 전성의 시대, 분열과 몰락의 시대 등 일정한 이야기들을 가지면서 미국의 역할과 권력층 내부의 밀월관계를 웃음과 함께 풍자하고 있다. 또 고원정씨는 작품의 배경이 되는 시대적 상황을 역사의 각 변동기에서 끌어들이고 있는 것이 그의 콩트집의 한 특징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거론되고 있는 인물도 당시의 인물들로, 그들을 현대의 청문회에 등장시켜 죄의 있고 없음을 가름하고 있다. 「대감들 청문회에 불려오다」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면 조선 태종의 스승이었던 원천석을 필두로 태종의 오른팔 역할을 하며 폭정을 휘두른 이숙번, 조카 단종을 축출한 수양대군, 임진왜란 때 한양성에서 왜군에 저항한 레지스탕스 등 조선시대 전반에 걸쳐 영욕의 세월을 살다간 사람들이 등장해서 오늘날의 정치세태를 생각하게 해준다. 한편 동광출판사는 사회 정치 풍자집을 시리즈로 출판해 콩트의 교시성을 강조하고 있는 느낌을 갖게 한다.

이러한 정치풍자콩트가 유행을 일으키게 된 데는 5공 청문회·광주 청문회 등의 정치적 비리가 매스컴에서 거론되었다는 것과 함께 대개의 콩트 작가들이 '국민의 의견을 묻지 않고 행해진 것'이라고 주장하는 민자당의 탄생, 그리고 3김씨에 대한 정치적 실망이 민주화 열망과 함께 터진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소소한 일상생활에서 그 소재를 끌어들이며 씌어진 작품으로는 표성훈의 「괜찮아유」(청맥), 김홍신의 「제법 노는 사람들」(행림), 김남조의 「아름다운 사람들」(소설문학사), 허근찬 외 지음의 「뽕박야」(아름다운 세상), 강유일의 「황후연습」(선비), 그리고 박석수의 「분위기가 있는 여자」(글빛)가 이러한 부류의 작품들이다. 이 콩트집들은 부부간의 생활, 친구와의 일, 직장에서의 있을 법한 이야기 등을 잔잔한 반전으로 처리하고 있어서 직장여성들에게 인기있는 책이 되고 있다.

대학생과 고교생을 주 독자 대상으로 한 콩



시중에 나와 있는 콩트집을 소재별로 분류해보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정치풍자를 비롯해 병영생활이나 대학캠퍼스를 다룬 것, 그리고 스포츠 신문에 연재됐던 '아한 글'들을 모은 것 등 대단히 다양하다. 사진은 대형서점의 서가 한켠을 가득 메우고 있는 콩트집들.

트들은 대부분 대학생생활에서 그 소재를 얻고 있는데 요즘은 그리 많은 판매량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교보문고의 한 관계자는 "별곡 시리즈, 최불암 시리즈 등이 나오기 전까지 잘 팔리던 콩트집이 이제는 독자층을 많이 잃었고, 이와함께 요즘 청소년층의 독서성향이 콩트보다는 단편소설이나 에세이류의 글들을 많이 읽는 편"이라고 한다. 대학생생활을 주로 다룬 콩트를 보면 이은수의 「캠퍼스 스켓치」(하나), 이정하 외 지음의 「우리들 슬픈 사랑의 그림자」(햇살), 최승환의 「청개구리 전성시대」 등이 눈에 띈다. 이들 콩트집은 필자 또한 대학에 머물고 있거나 대학을 졸업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서 싱싱한 대학생들의 생활을 재치 있게 풀어 보여주고 있다.

선정적 야담 모은 책들도 한몫

병영을 풍자한 콩트집이 많다는 것도 현재 콩트집 출판의 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정치인들을 콩트의 주인공으로 다루는 것이 금기시되어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군대라는 사회 또한 건드리면 안될 성역으로 치부되었던 대세가 무너지면서 군대의 이야기도 한 시대에

웃음을 줄 수 있는 소재가 되어왔다. 박호성의 「찌그다시 병영블루스」 「졸병도 반드시 제대한다」(흙), 김재덕의 「졸병 추억록」(글사랑) 등이 바로 병영생활에서 웃음을 건져내고 있는 작품들. 이러한 병영 콩트집은 우선 성인 남성들의 대부분이 술자리에서 나누는 대화들이 병영이야기일 정도로 긍정적·부정적 향수가 있는 소재고, 병영에 대한 경험이 없는 여성들에게는 그 호기심을 조금이나마 채워줄 수 있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잘 팔리는 책으로 자리 잡고 있는 듯하다.

이밖에도 중소기업체 노사간에 일어나는 희노애락을 풍자한 김종욱의 경영콩트 「당신들이 싸장님」, 미국에서 유학까지 한 정치학 박사 이우각의 「염라대왕 행차시요」(혜서원), 대학신문 가십을 시대별로 분류해 게재한 「대학가 풍자 언어집」(푸른숲), LA 한인촌을 나성 달동네로 표현하면서 미국 사회를 풍자한 「콩트 아메리카」(책나무), 이조년의 골프콩트 「성적(?) 보고서」(성하) 등이 특이한 소재를 다루고 있으며, 스포츠 신문에 연재됐던 야담들을 모아놓은 전영호, 임용순 등의 콩트집이 시중에 선을 보이고 있다.

— 이성수 기자